

국립중앙과학관 별의별 과학특강

2026년 3분기 운영계획(안)

□ 특강 개요

- (브랜드명) 매월 셋째 주 ‘별의별 과학특강’
- (장 소) 사이언스홀(600석)
- (대 상) 유아, 초등학생 등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 등
- (일 정)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4시~15시 30분
- (예 약) 매월 첫째 주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 공지
- (26년 하반기 주제: 과학이 사회와 만나는 방식)
 - 기술변화 속 인간과 사회를 폭넓게 다루는 과학리터러시 강의
 - 일방적 교육 강연보다 쌍방향토론과 논쟁이 있는 상호소통 지향
 - 강연 전후 주제연관 체험코너 및 참여이벤트 진행
- (3분기 프로그램)

구분	주제	강사
7월 18일	인공지능과 안전하게 살아가기 ※ 참여이벤트 : AI감별사! 인공지능 생성물을 찾아라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학과 민무홍 교수
8월 15일	아톰과 로봇태권V 이후 휴머노이드는 어디까지 왔나 ※ 참여이벤트: 나의 로봇 사용 설명서	서울SF아카데미 박상준 대표 SF소설가 김창규 작가 한국기계연구원 박정애 박사
9월 19일	AI시대, 인간답게 말하고 관계 맺는 법 ※ 참여이벤트: 마음을 선물해 드립니다	이민호 강사(스피치 코치, '어른의 말하기', '적정한 공감' 저자)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별의별 과학특강

7.18



인공지능과 안전하게 살아가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학과 민무홍 교수

EVENT

AI감별사! 인공지능 생성물을 찾아라(스피드퀴즈)

아름과 로봇태권V 이후 휴머노이드는 어디까지 왔나

서울SF아카이브 박상준 대표, 김창규 SF 작가,
한국기계연구원 박정애 박사

EVENT

나의 로봇 사용 설명서

8.15



AI시대, 인간답게 말하고 관계 맺는 법

어른의 말하기, 걱정만 공감 저자 이민호 강사

EVENT

마음을 선물해 드립니다

9.19



AI시대, 인간답게 말하고 관계 맺는 법

어른의 말하기, 걱정만 공감 저자 이민호 강사

EVENT

마음을 선물해 드립니다

무료 사전예약 (누구나) : 국립중앙과학관 통합예약> 과학특강



국립중앙과학관, '별의별 과학특강'

- 과학과 사회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쉽고 흥미롭게 접근
- AI, 휴머노이드, 우주산업 등 최신정보부터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 등 전 세대가 공감할만한 주제 선정

‘별의별 과학특강’은 다양한 과학분야의 흥미로운 주제를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표 과학강연 프로그램이다. 전문 강연 중심의 일방향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관람객 등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학문화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는 토크쇼형 강연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과학과 사회가 만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질문들을 깊이 다룰 수 있도록 주제를 심화하였다.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로봇과 인간의 관계, 우주와 사회, 과학이슈와 사회변화, 인간관의 변화, 과학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 등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본다.

7월 18일에는 ‘인공지능과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주제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과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학과 민무홍 교수가 AI시대의 안전과 신뢰, AI 리터러시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인공지능 생성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는 관람객 참여이벤트 ‘AI감별사! 인공지능 생성물을 찾아라’도 함께 진행한다.

8월 15일에는 ‘아톰과 로봇태권V 이후 휴머노이드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서울 SF아카데미 박상준 대표, 김창규 SF소설가, 한국기계연구원 첨단 로봇연구센터 박정애 선임연구원이 참여해 SF영화나 만화 속 로봇과 오늘날 휴머노이드 기술을 비교하며 우리가 상상해온 미래가 어디까지 현실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관람객은 ‘나의 로봇 사용설명서’로 내가 원하는 로봇의 역할을 현장에서 제안할 수 있다.

9월 19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가족대상 특강으로 운영한다. ‘어른의 말하기’, ‘적정한 공감’의 저자이자 스피치 코치인 이민호 강사가 ‘AI시대, 인간답게 말하고 관계 맺는 법’을 주제로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말하기, 공감, 관계의 의미를 풀어낸다. 특강 후에는 ‘마음을 선물해 드립니다’ 이벤트로 가족과 지인에게 마음을 전할 자리를 마련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는 “별의별 과학특강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을 사회현상과 접목해 다시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라며 “하반기에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기술발전의 변화, 인간과 사회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전 세대가 과학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매 월 셋째 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방법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science.go.kr)을 통해 해당 월 첫째 주에 안내될 예정이다.